

2011

K O R E A F O U N D A T I O N F O R W O M E N 2 0 1 1 F i n a l R e p o r t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한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보고서

프로젝트소개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과정 ● 02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소개 ● 04

프로젝트 세부사업보고

〈폭력 및 갈등발생 전 Care: 이주여성지지 프로그램〉 ● 13

〈폭력 및 갈등발생 후 Care: 쉼터지원 프로그램〉 ● 40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생애위기 전반 Care: 이주여성전문상담원교육〉 ● 49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및 다문화 조성을 위한 2011 다문화사회글짓기공모전〉 ● 58

프로젝트 성과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성과 ● 64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후기 ● 66

단체소개

주관단체소개 ● 7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2011 REPORT

발행일 2012년 1월 30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발행인 조형 기획편집 지원사업팀_최경진 디자인&인쇄 orange

2011.3~2011.4

- 우정사업본부 지원 확정 및 킥오프 행사
- '이주여성인권과 쉼터의 역할'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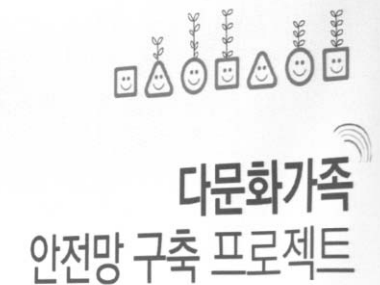


- 사업간담회 및 워크숍
- 쉼터지원프로그램 시작



2011.7~2011.8

- 쉼터지원프로그램 간담회
- 우정사업본부 중간보고 제출 및 보고회 참석



2011.11~2011.12

- 파트너 단체 사업완료 보고서제출
- 단체 현장방문
- 사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책자 발간

2011.5

- 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시작



2011.6~2011.7

- 중간보고 및 회의 1박2일 프로그램



2011.9~2011.10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추석나눔
- 우정사업본부 중간평가 및 사업보고회
- 2011다문화글짓기 공모전 공모 시작
- 2011다문화글짓기 공모전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4년간 전국 42개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의 배경

2011년 현재, 한국사회의 체류 외국인 수는 141명이며, 결혼이주자의 숫자는 33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 수와 결혼이주의 증가는 더 이상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 한 문화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닌 국가의 경계,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이주’를 통해 기존의 삶과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있는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여성, 그리고 언어, 문화, 성별, 환경의 차이 속에서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가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주목해 왔습니다.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4년동안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프로젝트는 전국 18개 지역사회(중복포함)에서 다문화가족간의 상호이해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전국 24개의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중복포함)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상담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또한 안전망(Safety-Net) 조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매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영역과 내용을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사업의 변천

<p>2008~2009</p> <p>가족통합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개지역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진행 (아내, 남편, 부부 프로그램 진행)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전국 5곳 지원 (쉼터 이용자 생활 및 상담 지원)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다정다감운동회 	<p>2010</p> <p>정서적 지지 확보 및 다문화사회 조성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6개지역 다문화가족이해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시아머니, 자녀, 이주여성들 간의 상호소통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7곳 지원 (쉼터 이용자 직업교육, 사회복귀지원)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p>2011</p> <p>사회적 지지 확보 및 구조적 안전망 구축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6개지역 다문화여성자조모임 및 사회활동 지원(직업활동, 자조모임리더 교육, 사회활동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7곳 지원 (쉼터 이용자 의료비지원,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네트워크 형성)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가 자격 취득 및 활동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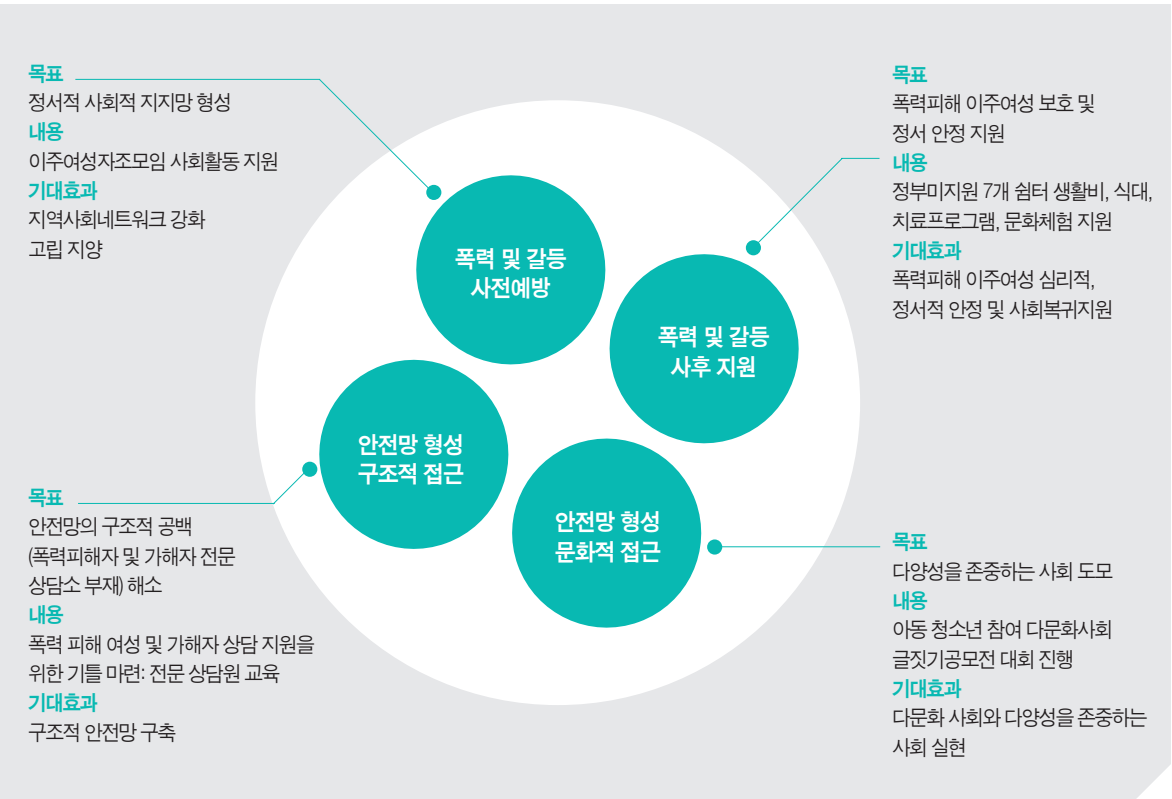
●●사업의 내용

[2011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다문화 4 Care!>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15개 지역사회에서 안전망(Safety-Net)을 구축하였으며 27,4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폭력 및 갈등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 조성하고자 <다문화 4 Care!> 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폭력 및 갈등 사전예방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자조모임과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상호간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하고, 폭력과 차별 그리고 갈등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원(폭력발생전Care)
폭력 및 갈등 사후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이주여성쉼터과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전국쉼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주여성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형성(폭력발생후Care)
안전망 형성의 구조적 접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 가해자 상담, 가족상담을 위한 상담원 교육 진행(생애위기전반Care)
안전망 형성의 문화적 접근	아동 청소년에게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다문화사회 조성을 통한 Care)

●●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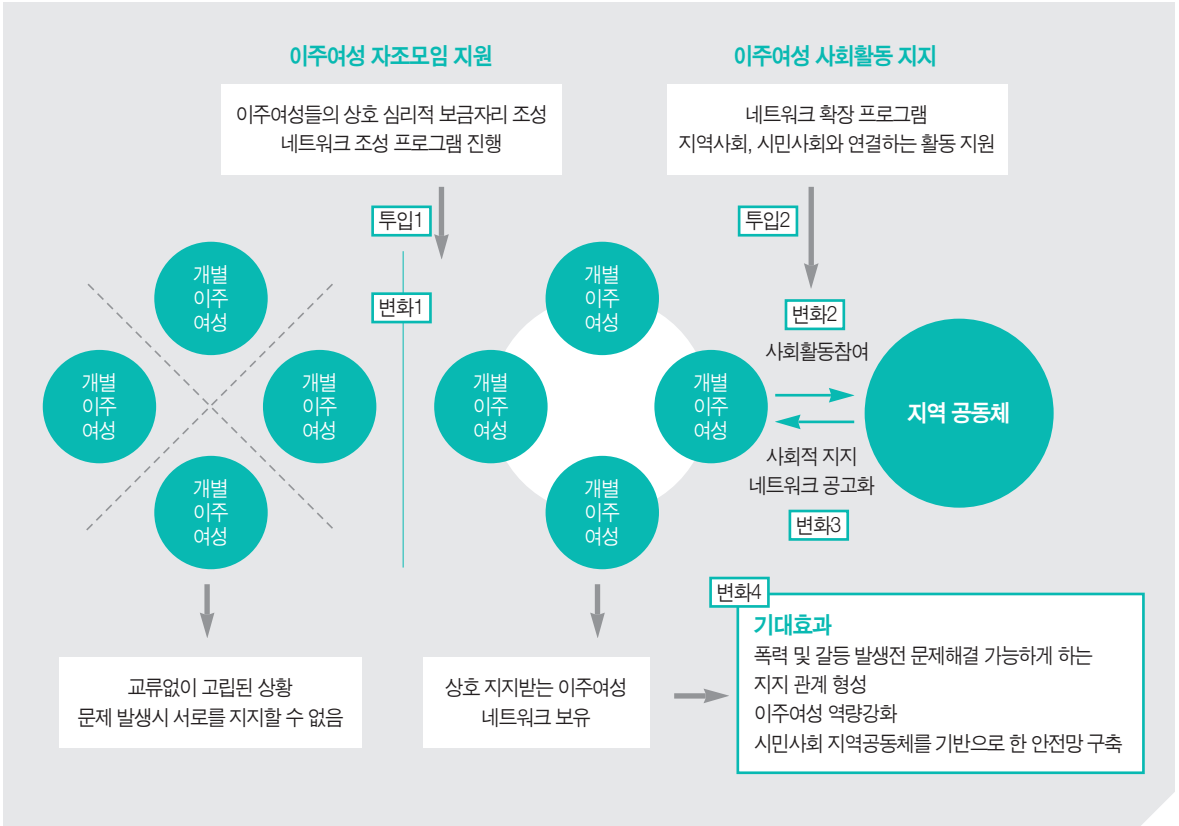
Care 1: 폭력 및 갈등 사전예방 「이주여성 지지프로그램」

2011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다문화 4 Care!>의 첫 번째 Care로, 이주여성과 가족이 자조모임과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고, 폭력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은 이주여성자조모임과 이주여성 지역사회활동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

사업비	30,000,000원
대상인원	4,620명(실인원)
진행지역	대구, 광주, 부산, 오산, 청주, 양주지역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6개 지역 이주여성자조모임과 지역사회활동 지원 이주여성자조모임 지원: 선주민, 3-10년 정착 이주여성과 초기 입국여성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문화활동을 통한 화합 시도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 축제참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대학교 언어 및 다문화 강사 활동, 시의회 및 관공서 방문을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시도

●●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사업 성과

-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고립 회복, 가족간 · 이주여성간 정서적 지지 확보
-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이주여성 역량강화와 시민성 함양
-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지확보

●●파트너 단체

단체명	자조모임 활동내용	지역사회 활동내용
(양산) 희망웅상	법과 제도, 사회보험 및 정책, 다문화정책 세미나 진행으로 역량강화 시도, 리더교육을 통해 초기입국여성과 멘티-멘토관계 형성	시의회, 지역사무소 방문 등의 활동, 불치병 아동 후원활동
(오산) 이주여성센터	이주여성 자국 문화 및 역사 스터디	오산 화성지역의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다문화강의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지역사회에서 정착한 이주여성 선배와 초기입국여성간의 멘토링진행	경제교육과 더불어 구직활동 진행, 지역 NGO방문하여 시민사회 활동 참여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간의 문화활동(음악, 체육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3회의 지역사회축제참여, 음식, 문화체험 부스 운영
(부산) 이주여성인권센터	지역사회에서 정착한 이주여성 선배와 초기입국여성간의 멘토링진행	경찰서, 인력개발센터 등 주요 지역사회 기관 방문하여 다문화인식 개선 활동 진행
(광주) YWCA	영어전문강사활동 세미나를 기반으로 자조모임형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총 8개소에서 각 12회씩 영어강사 봉사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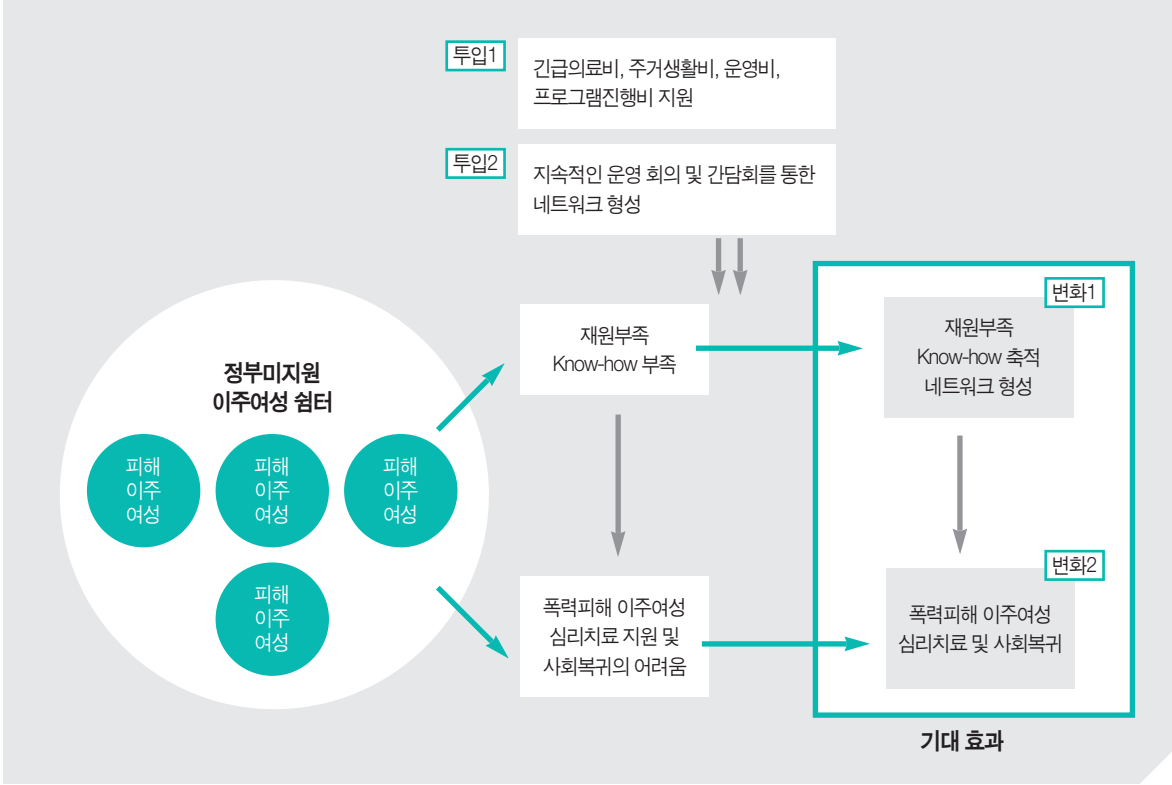
Care 2: 폭력 및 갈등 사후지원 「쉼터지원프로그램」

2011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다문화 4 Care!>의 두번째 Care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과 갈등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정부 및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도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폭력과 갈등 해결 및 재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총7개의 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쉼터별 특성에 따라 출산 및 의료 지원, 가족 상담, 법률상담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 돌봄 및 생활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쉼터들이 '전국쉼터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토론회 및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다문화가족 사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시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비 30,000,000원
대상인원 9,888명(실인원)
진행지역 오산, 대구(2곳), 나주, 서울(2곳), 강화 총 6 지역
진행내용
- 폭력 및 갈등 상황을 경험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 · 심리 안정 지원,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추석 나눔,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 쉼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와 전국 26개 쉼터 관계자와 정부관계자 간의 토론회 진행

●●필요성과 기대 효과



●●사업 성과

-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귀, 사회통합추구
- 쉼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내용

생활 및 상담지원	쉼터거주이주여성과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비 지원 쉼터거주이주여성과 가족 9,888명에게 가족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가족통합지원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명의 긴급의료지원(제왕절개수술, 가정폭력정서불안아동치료)/50명의 미술치료 진행
추석나눔	전국 7개의 쉼터에 추석선물나눔 진행(쌀, 과일, 욕실 · 생활용품 등)
문화탐방프로그램	영화, 연극보기, 나들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치유 진행
네트워크 형성	전국 7개 쉼터의 3회 간담회 1회 정책 토론회(전국 26개 쉼터 관계자 등 100명 참여)를 통해 전국네트워크 안전망 형성 다문화가족에게 특성화된 지원 진행(대구이주여성쉼터-법률지원, 가족상담전문지원, 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아동지원, 서울아델의집, 강화생명의 향기, 나주이주민의 집- 출산지원, 행복이주여성쉼터-미술치료, 심리치료)

●●파트너 단체

대구이주여성모자원쉼터 **경상/대구**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경상/대구**

나주이주민쉼터 (다문화가족을사랑하는모임) **전라/나주** ● 오산이주여성쉼터 **경기/오산** ● 여성쉼터 “생명의 향기” **경기/강화**

아델의 집 **서울** ●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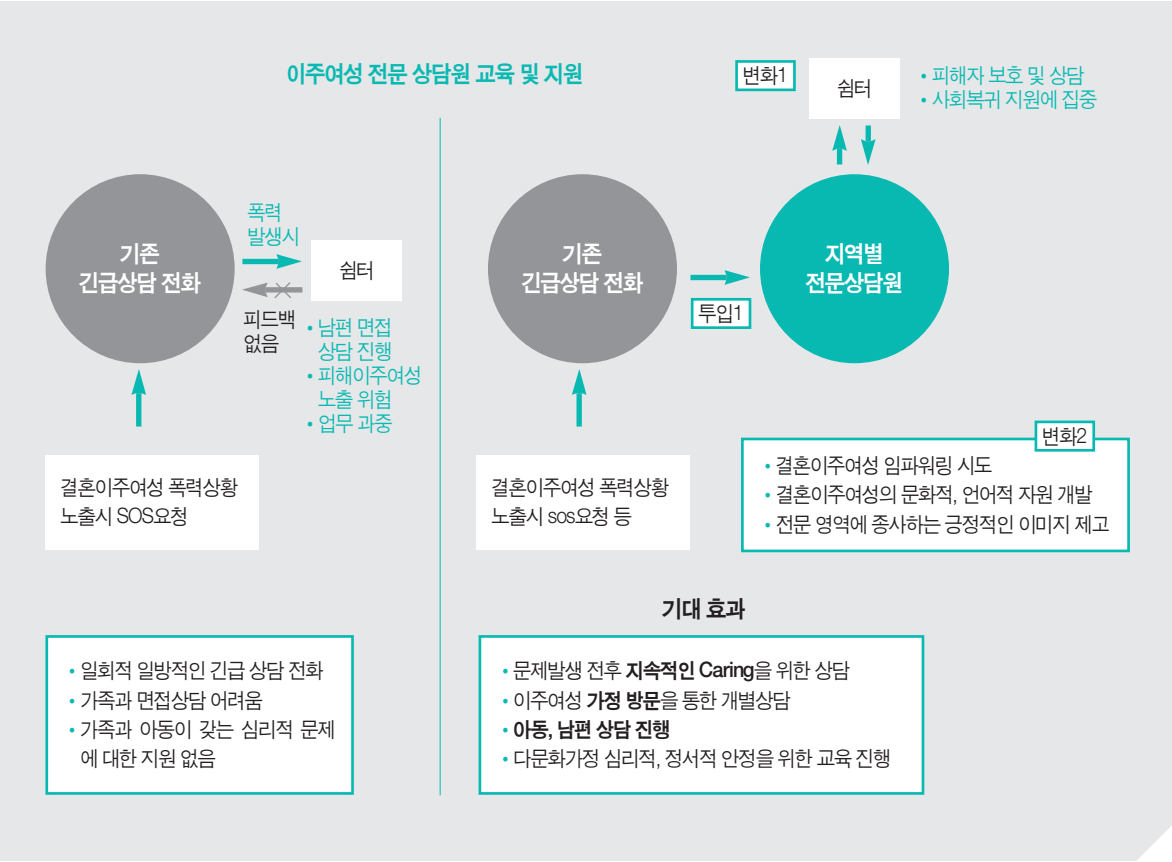
Care 3: 안전망의 형성의 구조적 접근 「이주여성전문상담원 교육」

2011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다문화 4 Care!〉의 세번째 Care로, 이주여성의 문화적 · 언어적 자원을 개발하고 임파워링을 시도하는 동시에 갈등을 경험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이주여성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방적, 일회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긴급상담전화의 한계, 기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가족과의 면접상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내용

사 업 비	10,000,000원
대상인원	140명(실인원)
진행지역	서울, 대구
진행내용	이주여성 출신의 전문상담원 양성(가정폭력상담사 100시간 교육 이수 및 상담활동 진행) 35명 자격취득 및 활동

●●필요성과 기대 효과



●●사업 성과

- 이주여성 출신의 가정폭력상담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 이주여성에게 자국의 언어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파트너 단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경상/대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Care 4: 안전망 형성의 문화적 접근 「다문화사회조성사업」

2011년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다문화 4 Care!>의 네번째 Care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어 2년차로 진행된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우리는 다 ~ 다문화에 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이 경험한 다문화이야기, 엄마나라 방문기, 가족이야기,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문화사회 건인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격려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비	18,000,000원
대상인원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명 대상 홍보, 258명 참여
진행지역	전국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에 이어 2회째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진행 • 총 16작품 선정 및 시상

●●사업 성과

- 초·중·고등학생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 제공
- 심사위원과의 대화 및 토론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각과 가치를 학습
- 문집 발행과 전국 초·중·고 배포를 통해 미래 사회주역인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기회 제공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사업보고

다문화 4 Care!

그 첫 번째 Care, 이주여성지지 프로그램



“다문화 수업, 역사와 인권교육, 나라별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나는 한국사회에서 주변에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다문화 수업자료를 만들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격증도 취득했고, 그렇게 이주여성센터안에서 나는 한 해 한 해가 변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다문화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업 참가자 수기 중

참여단체

양산희망웅상 ● 오산이주여성센터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YWCA ●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사)희망웅상

“우리 자조모임에서는 다문화어울림한마당에서 번 수익금 전액을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치료 비로 기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교육, 복지제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요양원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나에게 자조모임이 없었다면, 고향친구들과 자주 만날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들 자기 사는데 바빠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베트남 자조모임 회원 부티탐님 활동후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업대상	양산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실인원 1,448명 연인원 3,122명)
사업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11월 30일
총사업비	5,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한 상호지지 기반 구축(내실을 겸비한 멘토 양성, 나라간 네트워크 형성) • 직업탐생 적성검사를 통한 사회활동 준비지원 • 다문화어울림한마당을 통한 캠페인,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확산 시도 • 기관탐방을 통한 사회성원으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능동적 네트워크 형성



사업 세부 내용

사업 내용

리더교육 및 자조모임 (18회진행)

- 리더교육(나라별2명) -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및 취업그룹의 리더 참여
- 한국사회 법과 제도, 경험 나누기, 시민권 세미나 진행
 - 체류문제, 영주권, 국적 취득에 관한 법률 스터디 진행
 - 사회보험과 복지지원 교육 및 지역사회 조례안 및 지역 다문화정책 세미나 진행
 - 자조모임 리더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라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사회공헌활동 참여
- 자조모임: 7회의 자체기획 프로그램 진행
- 멘토링을 활성화하여 서로간의 지지 형성함
 - 공동체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함
 - 출신국에 대해 공부하는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세부 내용

사회활동 준비지원 (2회)

- 총 2회의 직업탐색 및 직업적성교육 진행
- 직업적성교육 :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흥미도검사 등을 시행하여 자신의 직업 유형을 파악하게 하고 자기 이해를 높임
 - 직업탐색 : 여러 가지 직업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이주여성 직업탐색 및 자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다문화어울림한마당 (1회)

-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진행: 지역민과 이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인식개선캠페인: 지역민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진행
 - 다문화체험행사: 다문화물품을 체험하며 다문화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진행
 - 상담활동: 한국어가 서툰 초기입국자들에게 모국어상담 통해 나눔과 도움을 진행
 - 나눔활동: 어울림 한마당의 판매수익 70만8천원을 한국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두 명의 수술비 지원으로 전액 사용

기관탐방 형성 (2회)

- 지역문제와 주민정책에 관한 활동 및 사회성원으로 역할 강화 시도
- 시의회방문: 지역민의 당면문제인 일자리문제, 보육문제, 교통문제 등을 건의 및 현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선점 제안 등
 - 웅상출장소방문: 이주민의 입장이 아닌 웅상시민으로 행정상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대책 건의, 이주민이기에 가진 능력들을(통역,번역 등) 활용해줄 것 등을 건의



자조모임 회의 기록 2011년 10월 27일

안전

캄보디아 자조모임 베트남에 연대 요청합니다.

회의내용

1. 체육대회 때 일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참석해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음은 항상 자조모임에 있다고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2. 세암모브만 혼자 남아 베트남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스라이코이는 집안문제로 당분간 못 나온다고 합니다.
3. 베트남이 좋다고 해서 다음 달 요양원 자원봉사에 세암모브 동참합니다.
4. 이번 주에 라오스에서 까이까우 라는 후배가 왔습니다.
라오스 출신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세암모브가 많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5. 티셔츠 판매금액을 나라마다 다 합하니 72만원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사)희망웅상

기록도움 : 보탄투이(베트남)

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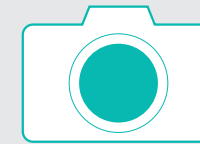
- 리더강화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인권의 중요성 자각 및 시민성, 활동가성을 고취하고 리더십 강화함
- 자조모임을 통해 결속력 강화와 기획력 향상을 가져옴
- 다문화어울림마당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과 지역 내 지지기반을 마련함
- 웅상시 기관탐방 간담회를 통해 시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활동을 펼침

활동가 소감

활동가 김향란- 이번사업을 통해 경험한 여러 가지 변화들!

TV에 나오는 다문화가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있던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어울림마당에서 캠페인을 하고 자국어로 상담해주는 이주여성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가졌다. 또한 지역봉사활동과 시기관간담회에서 차분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이주여성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지역민들에게 다문화여성들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인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없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로 캠페인을 하고 모국어로 상담을 하며 행사장을 흔적도 없이 말끔히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운 여름 휴가기간 스스로 지역봉사를 하려고 모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시의회, 장, 시의원, 출장소장, 직원들 앞에서 조리 있게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들이 구석구석 조금씩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사진으로 보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주여성 다문화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오산이주여성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다문화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떨고 힘들어하던 이주여성들이 갈수록 당당해지고 설명도 여유있게 하게 되었다. 함께 하면 할수록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에 나는 존경을 표하게 된다.”

오산이주여성센터 활동가 이정아님의 활동수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이주여성 다문화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대상 : 오산화성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오산·화성·수원·평택지역 거주하는 이주여성 및 가족 실인원 2,140명 연인원 4,400명
사업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11월 30일
총사업비	5,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사회, 역사, 문화를 알리는 다문화활동으로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 이주여성이 주체적 여성으로, 리더로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이주여성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이주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사업 내용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세부 목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준비 및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 연령에 맞는 강의안 개발
오산화성지역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다문화강의를 진행하며
다문화강사로서 역량개발

추진 내용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자조모임 회의 및 교육준비
 - 3월초 4개국 이주여성 자조모임 형성
 - 3월 중순 오산화성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문발송
 - 3월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섭외완료
 - 4월초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자료집 제작 완료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 운암초등학교, 다솜지역아동센터, 운암고등학교, 대안학교 배움터 길(중·고등통합학교), 매여울초등학교 전학년, 한신대학교 다문화실천과, 대평초등학교 전학년, 운산초등학교 6학년, 샘키즈 어린이집, 정남초등학교 5,6학년, 운암고등학교 3학년 등 총 11개 학교에서 활동 진행

이주여성 여성인권과 만나다 - 여성성향상과 여성권리 교육

세부 목표

이주여성 인권, 여성권리 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추진 내용

- 이주여성 여성인권 교육 준비 및 홍보활동
- 역사와 인권 교육, 미술치료
 - 세계역사, 아시아의 역사, 한국전쟁, 한국의 근현대사와 인권에 대한 교육(4회)
 - 미술로 만나는 내 마음 - 미술치료 2회
 - 이주 관련 1회 교육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각 나라별 모임

세부 목표

이주여성 인권과 여성권리를 위한 당사자 활동 지원
자조모임 활동을 위한 기본모임을 통해 이후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초 마련

추진 내용

- 자조모임을 위한 각 나라 대표 모임 - 8월
- 나라별로 모임 진행
 - 필리핀: 자국의 음식문화로 자조모임의 특성을 통해 지속성 유지
 - 중국: 센터 내 재할용 가게 운영
 - 태국: 그림그리기를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조모임을 진행
- 나라별 네트워크를 위해서 녹색가게를 중심으로 자조모임 진행 예정

이주여성과 떠나는 자유여행 “풍경” - 봄나들이

세부 목표

이주여성 나들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이주여성 유대 강화 시도

추진 방법

- 이주여성과 떠나는 자유여행 ‘풍경’
 - 6월 6일 남이섬 - 총 88명의 이주여성과 가족 참여
 - 나라별 놀이 진행

태국모임(활동일지)

모임 참여자

와라판, 프릿사나, 피자린, 라오, 완판, 푸영바가, 쿠스마, 니파판

회의 내용

- 모임은 자주하는데 집에서 못 해먹는 태국음식해서 함께 먹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간다.
- 작년에는 이윤정미술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었다.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모임을 가져보자.
- 처음부터 너무 크게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 지금처럼 음식을 정기적으로 해먹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우리 모두가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하니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음식도 해먹자.
-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없다.
-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 아이들이 여전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우리 아이들에게 태국을 알려주자.

* 태국 대표는 와라판님이 한다.

* 2012년에는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태국의 미술, 음악 등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 센터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 자연스럽게 아빠와 엄마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자.

* 아이와 내가 행복해지자.

사업의 성과

- 오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찾아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의 문화, 사회, 역사를 알리는 교육을 전개하면서 다문화강사 및 활동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가짐
-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고부간 갈등, 차별과 억압 등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다짐



사진으로 보는

이주여성 다문화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이주여성, 미래를 디자인하다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진행하면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활동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개발까지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육의 진행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기를 통해 보다 생생한 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주여성 강사들이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김혜정님 활동수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이주여성, 미래를 디자인하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지역 : 대구 사업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실인원 80명 연인원 1,280명)
사업기간	2011년 3월 1일 ~ 2011년 9월 30일(총 7개월)
총사업비	5,100,853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의 정체성 찾기 및 새로운 관계망 형성을 시도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경제교육과 함께 구직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권익식 함양 지역탐방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시민으로 자리매김 시도



사업 세부 내용

사업 내용

멘티 - 멘토 프로그램

- 여성결혼이민자 멘티 멘토 프로그램- 사진스토리텔링 ‘나 이런사람이야’ 진행
- 진행방법 및 의의
이주여성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사진 표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자 함. 새로운 관계 맺기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정서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강사: 김상현 (여성영상공동체 핀다)

강좌 | 주제

- | | |
|----|-------------------------|
| 1강 | 이주여성, 사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
| 2강 | 스토리보드 구성 |
| 3강 | 촬영실습 |
| 4강 | 사진으로 스토리텔링하다 : 발표 및 토론 |

직업찾기 기초교육

- 여성결혼이민자 직업찾기 기초교육 - ‘미래를 디자인하다’
- 진행방법 및 의의
 - 한국경제와 대구지역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 지역탐방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지역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이 과정을 통해 국제결혼가족의 구성원으로만 살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자 함.

날짜 | 강좌 | 주제 및 강사

- | | | |
|------|----|--|
| 5/6 | 1강 | 머니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경제와 대구경제(김영숙, 일하는 여성아카데미 교육위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 회장) |
| | 2강 | 다양한 직업의 세계(박은정, 여성노동자회 대표) |
| 5/9 | 3강 | 나의 노동의 가치와 꿈(박은정, 여성노동자회 대표)
 기관탐방1(여성노동자회) |
| | 4강 | 여성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권리(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부 비정규사업부장) |
| 5/13 | 5강 | 여성폭력 예방교육(배운주, 대구여성의전화) |
| | 6강 | 이주여성노동자 직장생활 체험기(레티비츠다오,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상담원)
 기관탐방2(대구고용지원센터) |
| 5/16 | 7강 | 직업찾기-나의 꿈, 나의 희망(장경아, 포항여성회) |
| | 8강 | 면접기술-자기 소개하기(시므나노바 율리아,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팀장) |
| 5/20 | 9강 | 실무교육-인터넷정보활용 실습(이혜란, 컴퓨터 강사) |

활동 엿보기

‘미래를 디자인하다’ 강의록에서 발췌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나는 왜 한국으로 왔는가?
- 당신의 삶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가?
- 비전, 신념대로 살아보기
- 나의 좌우명은?
-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는가?
- 10년 후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직장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

- 취업시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직업의 종류, 위험여부, 안전시스템 확인
- 근로시간, 임금, 임금 지급일
- 근로계약서 작성
- 업체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 명함
- 입사일 기록
- 매월 임금명세표를 잘 보관

사업의 성과

- 이주여성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 찾기 및 새로운 관계망 형성 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의 자원을 획득하게 됨.
-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과 함께 구직훈련을 함으로써 사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로서의 인권의식을 가지게 됨
- 지역탐방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게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사진으로 보는

이주여성, 미래를 디자인하다



행복과 나눔을 위한 ‘디딤돌 민들레’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광주YWCA

“영어강사 교육을 받아 월산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영어강사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영어강사 모임 디딤돌 민들레 회원 아비게일님의 활동수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행복과 나눔을 위한 “디딤돌 민들레”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지역 : 부산 사업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실인원 32명 연인원 1,024명)
사업기간	2011년 3월 10일~2011년 9월 30일(총 7개월)
총사업비	5,5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들이 정보교류 및 관계증진을 위한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소통의 문제 해결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전문성향상 교육과 사회서비스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



사업 세부 내용

사업 내용	세부내용
자조모임 ‘디딤돌 민들레’	<p>디딤돌 민들레 결성하여 영어강사활동이라는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진행</p> <p>- 기간: 5. 23(월) ~ 10. 2(금) 오전10:00-12:00 / 총 10회 / 8명</p> <p>- 장소: 광주YWCA 강의실</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의 사회적응과 사회활동에 관한 논의 한국에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한 “나와 너”의 인관관계훈련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과 본국에 있는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 찾기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와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논의 ※직업과 전문성 향상 관련한 논의 영어강사활동시 미숙한 한국어가 강의 전달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논의 영어강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외모, 말투, 자질과 예의에 관한 스터디

전문성향상 교육 및 사회서비스 활동	내용	비고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영어 전문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도	
	- 기간: 7. 5(화) ~ 8. 16(화) 오전10:00-12:00 / 총 10회 / 8명	
	- 장소: 광주YWCA 강의실	
	- 지도: 송미심	
	- 강사자질 및 사회 공헌의 이해	Ice-breaker activity and tell about the course.
	- 영어교육의 필요성 및 한국 교육 학제를 소개한다.	
	- Phonics의 정의 및 교수법	*game
	- 발음 연습을 통해 정확한 구두 표현력을 길러 의사소통 능력 향상	Slam.. Color Sheet. Missing Card.
	- Teaching Plan 작성법을 지도한다.	*Song : The black song
	-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책을 소개하고 활동을 통해 영어 습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Teaching Plan : Color and Shape	*game
	- Teaching Plan : The weather	Slam.. Bingo sheet. Missing Card.,Die game
	- 초 · 중등 영어교육에 있어서 노래와 챗트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배경 이론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시한다.	*Song : How's the weather?
	- 초 · 중등 영어교육에 있어서 게임과 놀이의 활용을 그 배경 이론과 효과면에서 살펴보고 각 언어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game
	- Teaching Plan : Time, Family	Tic Toc game. body clock, up-down game. Finger hopscotch. sheet. Missing Card.,Die game
	-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읽기와 쓰기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쓰기 지도의 기본 원리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Song : What time is it?
	- 발음 교정과 함께 혼돈하기 쉬운 발음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이러한 발음을 다양한 문맥속에서 식별해내는 연습을 한 후 이의 지도법을 제시한다.	*game
		Family finger. Bingo sheet. slam Missing Card.,Die game,
		*Song : Where is your father?
		*game
		Slam.. Bingo sheet. Missing Card.,Die game. snow ball games.

- Teaching Plan : Fruit	*game
- 교육실습 및 평가 : 참여자 실습을 통한 영어교육과정을 총평가하고 복습하여 현장 교수기법을 익힌다	Family finger. Bingo sheet. slam Missing Card., Die game, *Song : Where is your father? *game Slam. game. snow ball games.

-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영어 전문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향상 시도
- 대상 : 지역아동센터 7개, 청소년쉼터 1개(사랑모아, 한빛, 월산, 무등, 파랑새, 송암, 예뎃지역아동센터, 광주시청소년쉼터)
- 서비스 : 주 2회 / 총 12회기
- 내용 및 성과
- 지역아동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센터 실정에 일정을 맞춰 주 2회 원어민 방문 교육을 실시
 - 직접 만든 교구를 준비하고 게임, 노래, 음악을 통한 활동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 아동들에게 즐겁게 즐기는 영어교육 시도
 -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영어강사로서의 열의가 높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완료
 - 원어민 영어강사 활동을 통해 가족내 지위와 자존감이 향상되어 경제적, 정서적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사업의 성과

-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정서적 · 심리적으로 문제에 처할 수 있는 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 지역구성원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강점인 언어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원어민영어강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위상을 존중,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적분위기가 확산

활동가 소감

활동가김정화-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다!

디딤돌 민들레를 진행하면서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이주여성들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이해와 한국사회에 대해 이질감에서 동질감으로 변해갈 때 진행자로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은 입장의 이주여성이 상담자가 되어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행자가 말을 할 때마다 재빨리 사전을 찾아가며 한국어를 공부하던 열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영어교육을 지도하여 극찬의 호평을 듣기도 하였다.

현재는 광주YWCA가 이주여성 원어민영어강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역에서 개인과외나 강사 요청문의가 많아 대부분 취업이 되었거나 준비중이다. 그중 필리핀스토어를 시작하여 호황을 누리는 사업가로 변신한 이주여성도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 예쁜 아이를 임신하여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출산일도 가까워진 참여자도 있다. 자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해준 이주여성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이주여성들을 기억하며 질적 양적으로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시 만나기를 기약해본다.



활동 엿보기

원어민강사활동일지 일부 발췌

성 명	어나리자 고메스
일 지	2011년 9월 20일 4:00 - 5:00
활동영역	무등 지역 아동 센터
활동내용	4:00 - 4:10 코 INTRODUCTION & REVIEWING (영화하고 복습한다) 4:10 - 4:20 코 "HOW'S THE WEATHER" 날씨하기 게임 4:20 - 4:30 코 ACTIVITY (활동) 4:30 - 4:35 코 GIVING (노래한다) 4:35 - 4:40 코 USHER & MATE (등고 인공) 4:40 - 4:50 코 BACK & USHER (MATE MEET YOU) 4:50 - 5:00 코 복습한다 (REVIEWING)
활동소감	오늘 "HOW'S THE WEATHER" 가르쳐 줬었다. 자음에는 학생들이 잘 듣고 내 말도 따라 했다. 그런데 나가 지나서 다른 학생은 잘 안 듣고 다른 학생도 잘 듣다. 그런데 노래 할 때 학생들 잘 따라서 재미있다고 했다.
관리자 및 강사평가	

교수학습과정안 일부 발췌

Date	place	English Classroom	class	A	Teacher	제기
Topics	Family					
Aims	*Name Identify the diff. members of the family and *Using Pronoun and their uses					
Step (Time)	Contents	Activities, Language items			Materials	
Intro duction	*Greeting and checking the attendance	T. Hello! Everyone! S. Hi! Teacher T. How are you today? S. I'm fine, thank you. T. Look outside the window. How's the weather today?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 T. Who's absent today? S. Teacher everybody is present! T. Good...				
* Review the Previous Lesson		* Using Flashcard Ask the ff. to the students T. Are you happy? Why Are you sad...? Are you surprised? Are you angry?				
Sing the Song Over- lapping	* Presentation	* This is my Family * Introduce the new topic "My Family" * Identify the diff. members of the family * Introduce the Pronouns and give their meaning. Pronoun - means Substitute for a noun ex. Robert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2. Clara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Pronouns: she, He * Showing the diff. members of the family				



사진으로 보는

행복과 나눔을 위한 ‘디딤돌 민들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행복플러스, 파워충전”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조모임을 통해 공동체리더 활동을 하며, 캄보디아 친구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카리나 음악동아리를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꿈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공동체리더 분철리의 활동후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행복플러스, 파워충전”
사업대상	청주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가족(실인원 119명/ 연인원 1,315명)
사업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11월 30일
총사업비	5,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출신국의 친구 및 통합국적 친구들과의 친교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망 향상 지역사회의 이해와 이웃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며, 출신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지역사회의 주체적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리더 양성



사업 세부 내용

사업 내용

자조모임
(문화활동)

문화활동을 통한 이주여성들간의 관계 형성

- 5개국(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용품 리폼, 오키나와 동아리 활동, 댄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총 70회 모임)

세부 프로그램 | 추진시기 | 사업 추진 내용

생활용품 리폼교실 | 월2회기/ 총12회기 | 1. 냅킨을 이용하여 일회용품지, 연필꽂이, 문패, 거울, 시계
2. 총 12회기 진행
3. 수업진행강사 : 원유정

생활체육 교실 | 월4회기 | 1. 댄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유대감 강화
2. 총 27회기 진행
3. 수업진행강사 : 박한나(자원강사)

오키나와 교실 | 월3회기 | 1. 오키나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주를 배우면서 정서적안정과 자원봉사연 주회를 통한 자존감 향상
2. 총 31회기 진행
3. 수업진행강사 : 이양순, 이미옥(자원강사)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역행사 참여 및 음식체험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

- 총3회의 지역행사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를 알림으로써 자긍심 향상의 기회제공

세부 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 추진 내용
이웃나라 문화체험 (나라별 맛-day 놀러오세요)	월1회기	1.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향상 2. 음식체험과 문화체험행사 지원 총5개 나라의 음식, 문화체험 실시 3. 총 6회기 진행 - 베트남 : 4월29일 - 중국 : 5월27일 - 통합국적 : 7월1일 - 몽골 : 9월23일 - 캄보디아 : 10월27일 - 필리핀 : 11월25일 4. 진행자 : 센터 실무자, 공동체 리더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모델로써 공동체 리더 양성(총 9회기리더모임)	
	세부 프로그램	I 추진시기
	사업 추진 내용	
공동체 리더모임	월1회기	1. 매월 나라별 맛-데이 행사 후 리더들의 참여로 평가회의 및 자조모임 진행 2. 총 9회기 진행
자조모임 지역축제 참여	수시	① 세계인의 날 행사 음식체험부스 운영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다문화인식개선 과 가족들의 참여로 가족의 유대감 형성 시도 - 5개나라(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음식체험부스 운영 - 참여인원 : 10명 ② 충북전통장류축제 음식체험부스 운영 - 지역주민들에게 나라별 전통음식체험 부스 운영을 통하여 이주여성들 의 자긍심 향상

	- 5개나라(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음식체험부스 운영 - 참여인원 : 42명 ③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 중국 참여 - 매년 실시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이주여성부문에 참여 - 참여인원 : 2명 ④ 분평초등학교 세계음식축제 체험부스 운영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체험 부스 운영하여 다문화를 알림 - 참여인원 : 10명 ⑤ YWCA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여 - 어려운 이주여성가정에 김장을 나누어줌 - 참여인원 : 10명
--	---

**활동 엿 보기**

자조모임 회의록 일부 발췌

회의명 맛-데이~ 놀러오세요 (몽골데이) **일시** 2011년 9월 23일

참석자 누엔티김안, 장지영, 앵호자야, 내나, 왕려염, 강수매, 분찰리, 오미정, 왕은경, 강현옥, 박정미, 권태정

진행사항 1. 음식 만들기 2. 게임 3. 경품추첨 4. 공지사항 안내

논의사항

평가회의 (실무자 및 통번역단, 공동체 리더)	강수매 : 맛-데이로 인해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1. 베트남 리더 : 누엔티김안, 장지영 (매월 15일 모임) 몽골 : 앵호자야, 내나 (셋째주 금요일 12시) 필리핀 : 미셸, 제니퍼 캄보디아 : 분찰리	왕려염 : 받아쓰기 대회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어 너무 좋다.
2. 리더모임 : 매월 셋째주 금요일 2시	장지영 : 조별로 미리 나누어 주어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
3. 오미정 : 집중감 최고. 조별로 게임진행이 재미있었다. 왕은경 : 장소가 협소하여 아쉽다.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박정미 : 간편한 음식으로 좋았다.
앵호자야 : 몽골춤을 배우지 못하여 아쉽다.	
내나 : 모두 함께 해서 좋았다.	

- 맛-데이로 인해 공동체 모임 활성화의 계기 마련
- 리더의 평가회의 참여로 인해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 같다.
- 맛-데이가 끝나고 프로그램의 평가를 들으니 수정할 부분이 생겨 좋다.

사업의 성과

- 지역사회축제 5회기 참여활동으로 역량강화 및 다문화인식개선에 일조함
- 지역사회축제 공동체리더로 공동체 회의 진행 및 프로그램 준비를 함으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됨
- 각종 동아리활동으로 친구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계기가 됨
- 오키나와 연주로 요양원에 정기적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일반인들에게 다문화 인식개선에 일조함
- 교육대상자에서 배움을 전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로 변화됨



사진으로 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행복플러스, 파워충전”



세상을 향한 이주여성들의 힘찬 발걸음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지원 ○ 이주여성 사회활동지지 ○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우리 자조모임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감이 향상되어 가족 내에서 변방이 아닌 주체가 되어 가족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꽃꽂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삶의 주인으로써 사회와 소통하는 이주여성들의 모임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김정미님의 사업후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세상을 향한 이주여성들의 힘찬 발걸음
사업대상	부산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실인원 516명/ 연인원 1,692명)
사업기간	2011년 3월 1일~ 2011년 11월 30일
총사업비	5,001,881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모임을 통해 문화차이, 음식차이, 자녀교육 등을 미리 경험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이주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시도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함께 참여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 한마당으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네트워크를 확보



사업세부내용

사업 내용

이주여성
자조모임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이주여성들 친목도모 기회를 마련하고, 구성원간의 친밀감 및 협력 단결 의식을 고취하고자 길 걷기대회 진행(18명 참여)

• 일정 및 장소 :2011년 4월 30일(토) 오전 10:30 ~ 15:30/이기대 수변공원

자국의 다양한 물품 만들기들 통한 서로에 대해 이해와 협동을 기르는 시간을 가짐

• 일정 날짜 : 2011년 5월 6일~6월 24일

프로그램 내용

번호	날짜	내용	강사
1	5/6(금)	마음열기 /자기소개하기 모임 내용 및 일정 공지 나라별 만들기 의견교환	진행자 (이기선) 담당 (김정미)
2	5/13(금)	몽골 소품 만들기(게르) 몽골 나라 소개, 몽골 전통가옥 소개/몽골 게르 만들기	강사: 작드허르러(몽골) 보조강사: 델게르후
3	5/20(금)	일본 소품 만들기(오테다마) 일본 나라소개/ 일본 전통놀이 소개, 일본 전통놀이 “오테다마”만들기	강사: 아우끼 유키에 보조강사: 오사다 요시코
4	5/27(금)	중국 나라 소품 만들기(전통놀이 및 판다) 중국 나라 소개, 중국 전통놀이 소개, 전통놀이 만들기 판다마추기 놀이 및 전통 무용놀이 재료	강사: 자오징 보조강사: 우양
5	6/10(금)	베트남 전통놀이 만들기 베트남 나라소개, 베트남 전통놀이 “나이아아” 소개 나이아아(고무줄)놀이 만들기, 종종(대나무)놀이 만들기	강사: 호티안뚜엣 보조강사: 이은정
6	6/17(금)	태국 놀이 소품 만들기 태국 나라소개, 태국 전통놀이 소개(쁘라타피안), 태국 소품 만들기	강사: 차다케우조이 보조강사: 박킴폰
7	6/24(금)	페루 전통놀이 만들기 페루 나라소개, 페루 문화 소개, 페루 의상 꾸미기	강사: 친차이실바수산나 보조강사: 문윤희

지역사회에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사회 조성 및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시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28회에 걸쳐 지역사회 기관 및 초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방문자수	지역사회 기관방문		방문자수	다문화이해교육		
	날짜	기관명		날짜	학교명	학반
14명	9월7일	동래경찰서	2명	9월6일	명서초	5-2반
	9월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2명	9월20일	양천초	5-2반
14명	9월1일	양정청소녀수련관	2명	9월8일	동궁초	3-1반
	9월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2명	9월20일	양천초	5-1반
14명	9월7일	동래경찰서	2명	9월7일	장선북지관	
	9월24일	부산민속보존예술협회	2명	9월20일	양천초	5-3반
14명	9월2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원	2명	9월16일	예인유치원	
	9월7일	동래경찰서	2명	9월22일	남산유치원	

이주여성 사회활동 지원	방문자수	지역사회 기관방문		방문자수	다문화이해교육		
		날짜	기관명		날짜	학교명	학반
	14명	9월9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2명	9월19일	장선북지관	
		9월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2명	9월29일	초량초	5-1반
	14명	9월7일	동래경찰서	2명	9월8일	동궁초	4-3반
		9월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2명	9월22일	반송초	5-2반
	14명	9월16일	한부모가족지원지원센터	2명	9월8일	명서초	6-2반
		9월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2명	9월16일	반송초	5-3반

아시아 문화 한마당	내용	참가자	비고
	중국 문화소개(문춘옥 전통문양등)	문춘옥, 원송지,소 아	춤공연
	몽골 문화소개	자가, 델게르, 돌곤, 침계	몽골노래와 율동
	초원에서 다같이추는 춤과노래 노래, 춤(친구찾기놀이)		노래: 여허르
	페루	수산나, 이사벨	춤: 와이노
	의상소개, 춤		노래: 에스쁘이토
	우즈벡 노래	루다, 안젤리나	노래: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일본 문화소개	오사다요시코, 토요다타카코, 이토우유키카, 이토나가유키리	칠석날에 대한 이야기 ppt 노래
	베트남 문화소개/ 노래	노래 : 디에우, 튀린, 최연이	대나무놀이 준비
	대나무놀이	호티안뜨익	디에우, 뚜엣, 자가,
	한국어교실 1반 노래	노래: 팍티족리, 뉴엔티휘엔	튀린, 최연이
	필리핀 노래	미미, 김미주, 로시	crazy for you
	아시아 소품 소개 및 설명		

선주민들의 지역 자조모임과 이주여성 자조모임을 연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 형성을 시도하
도자 함, 멘토-멘티 관계 혹은 상호지지라는 긍정적인 관계 시도(참가자 33명)

- 날짜 : 2011. 10. 29 • 장소 : 경주
- 연계단체: 한부모가족지원지원센터

프로그램내용			
친밀감	기차여행	돌아가며 나를 소개하고 궁금한 사람 옆으로 가서 소개하게 하고 짝꿍이 된다. 레크댄스(건강박수 외)	
공생관계	문화체험	양동마을, 세심마을체험(제기차기, 활쏘기, 옛만들기, 떡매치기 등) 경주시티투어(무열왕릉, 독락당, 옥산서원 보문단지 등)	

- 의의
-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선주민들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통한 친밀성을 강화
 - 한국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통합시도
 - 한부모여성가정과 결혼이주여성들과의 교류를 멘토 멘티 관계 형성

활동 엿보기

다문화수업 활동일지에서 발췌

일시(차시) 2011년 09 월 22 일 **시간** 5~6교시 **대상** 초등학교 **강사명** 조이차다케우, 박킴폰
장소 반송초등학교 **대상명수** 25명 **휴대폰** 010-2223-0000 **나라명** 태국

활동내용

- 인사나누기** | 태국 식으로 인사를 할 때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듯 인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해 보았습니다.
- PPT 수업** | 한국에서 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 3색으로 되어 있는 태국의 국기는 빨강색은 국민, 흰색은 불교, 파란색은 국왕 의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손가락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이 노래를 통하여 태국어로 다섯 손가락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함께 불렀습니다.
 | 숫자: 태국어 숫자세기 1부터10까지 먼저 태국어로 읽어 준 다음 자신 있는 학생에게 시켜 보았더니 대체로 잘했습니다.
- 전통의상체험** | 전통의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입혀주기도 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 송고란축제체험** | 체험하기 전에 태국에서는 4월에 가장 덥기 때문에 송고란축제(물놀이)를 하여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로 정하여 3일 동안 물놀이를 하면서 아무에게나 뿌려 주어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여, 모둠 별로 돌아가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사업의 성과

- 자조모임을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 이주여성 당사자 조직으로의 발돋움함
- 이주여성자국문화 한미당과 소품 전시회를 통해 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장 마련
- 지역사회 탐방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선주민 지역여성 모임과의 자조모임 연계를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사진으로 보는

세상을 향한 이주여성들의 힘찬 발걸음



그 두 번째 Care, 쉼터지원 프로그램



남편의 폭력으로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도움으로 요청하고 지금의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쉼터에 있으면서 취직공부, 한글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아이의 보육이 함께 해결되어 아이걱정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집처럼 편안했고,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 쉼터에 함께 있으면서 극복된 것 같습니다.

쉼터 거주 이주여성 수기 중

참여단체

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 나주이주민쉼터
오산이주여성쉼터 ● 여성쉼터 '생명의 향기' ● 아델의 집 ●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사업내용

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 추석나눔 ● 문화탐방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제안

사업 개요

사업명	〈다문화 4 Care〉 쉼터지원 프로그램
사업대상	서울 수도권 및 전국 권역 총 7개 쉼터 거주 및 상담 가족 총 9,888명
사업기간	2011년 3월 1일~ 2011년 11월 30일
총사업비	30,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상태에 있는 정부미지원 쉼터의 활동지원을 통해 쉼터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갈등해결 지원 • 쉼터거주 이주여성 및 가족이 생활지원과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 및 관계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 심리 치유 및 사회복귀를 도움 • 긴급상황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및 상담진행 •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 추석나눔 • 문화탐방 프로그램 •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제안

생활지원 및 상담진행 - 총 9,888명의 생활지원과 상담 진행

진행지역	오산, 대구(2곳), 나주, 서울(2곳), 강화 총 6곳 지역
지원의 필요성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관계로 상당기간 동안 쉼터에 머무르게 되며,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이주여성 상담 및 가족 상담, 법률지원, 필요시에는 귀국까지 쉼터에서 지원하고 있음. 때때로 쉼터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며,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쉼터의 경우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기초생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진행내용	<p>2011년 7개의 정부 미지원 쉼터 거주 이주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거주 이주여성의 생활비를 지원(1인당 37,000원, 단체당 월 평균 37만원 지원)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식주 제공 • 이주여성 당사자 및 가족의 폭력과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가족통합 및 관계회복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 총 6명의 긴급의료비 지원, 50명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미술치료 지원

지원의 필요성 심리 안정과 상담이 필요한 폭력과 갈등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에게 미술을 통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진행

진행내용의 예 목요 아동 집단미술치료 기록지 (15회기)			
치료일시	2011. 7. 7.(목) PM 06:30 ~ 08:30	치료사	황현정
프로그램	1.사후검사인 K-HTP검사를 실시한다. 2.지난회기들을 회상하며 종결에 대해 이야기한다.		
준비물	A4용지, 연필, 다과		
진행순서	1. 인사 및 스트레칭	도입	20분
	2. 활동에 대한 소개와 시연		15분
	3. 본격적인 활동	활동	40분
	4. 청소 및 휴식	종결	20분
	5. 마무리 평가 및 종결인사		25분
규칙	첫째, 치료사가 이야기할 때 들어준다.		
	둘째, 다른 집단원이 이야기할 때 들어준다.		
	셋째, 활동이 끝나고 종결때 이야기한다.		
	넷째, 재료 만지지 않기		
도입	다섯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Time-out으로 5분간 생각하고 돌아온다.		
	입실하여 착석하고 종결이라는 이야기에 아쉬워하면서도 마지막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계속하고 싶은데 끝나는 것에 대해 치료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활동	첫회기에 실시하였던 K-HTP검사를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지를 나누어주자 조용히 활동에 집중한다. 검사시 그림이 변화가 생긴 것을 집단원들 모두 인지하고 종결에 대한 나눔을 하자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종결	미술치료의 모든 활동을 종결하며 아쉬움을 제일 많이 표현하고 활동이 즐거웠고 생각한대로 잘 되지 않아 어렵기도 하였으며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집단원들 모두 사포에 그려진 그림을 색칠하고 조각을 맞춰 완성한 공동화라고 한다.		



대상자 (강) 4~1 (약)

평가

무무	참여도	3
	집중력	3
	자기표현	4
	만족감	3
	대인관계	2

지난 회기들 동안 꾸준히 참여하였으나 방과후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여 결과물들을 모두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였다.
지금까지의 미술치료 활동이 즐거웠고 재미있었으며 다같이 해나가는게 좋았다고 표현하였다.
무무는 회기들에서 활동시 다른 집단원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자신의 생각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만족감이 다른 집단원에 비해 부족하였지만 자신의 결과물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향후 무무는 내적인 불안과 분노를 해소시키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욱 증가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애플이	참여도	5
	집중력	4
	자기표현	3
	만족감	4
	대인관계	3

지금까지의 활동들이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하고 종결에 대해 아쉬워한다.
애플이는 회기들에서 활동을 하며 집중력과 만족감이 향상되었고 짝구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나 조금은 원활해졌으며 다른 집단원을 위해 활동을 돕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애플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화법을 개선시켜 대인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공주	참여도	5
	집중력	4
	자기표현	4
	만족감	4
	대인관계	4

지난 회기들의 결과물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들이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한다.
공주는 회기들에서 참여도가 높고 집중력과 만족감이 향상되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나 화법에 대한 개선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향후 공주는 억압된 감정을 분출시키고 해소하고 자기자신을 이해하는 활동과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쌍쥐	참여도	3
	집중력	3
	자기표현	3
	만족감	2
	대인관계	1

활동이 점점 재미있어졌는데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 하다가 가야하고 빠지게 되어 아쉽다고 한다.
쌍쥐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참여도가 높아지고 착석자세가 좋아졌으며 언어표현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잦은 불참으로 성취감과 만족감이 크지 못하였다.
향후 쌍쥐는 감정이나 활동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고 요구하는 것이 힘들며 낮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불안이 있어 이를 표출하고 해소시키고 탐색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짱구	참여도	4
	집중력	3
	자기표현	2
	만족감	4
	대인관계	2

활동이 오늘로써 종결된다는 것에 아쉽다고 하였다.
짱구는 중간회기부터 들어와 참여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자신의 감정이 올라올때에는 결과물을 훼손하였으나 애착을 보이고 꾸미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보였다.
향후 짱구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내재된 불안과 공격성을 표출하여 해소하고 자신의 강점인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할 듯 하다.

의료비 지원

진행예산	3,000,000원
지원의 필요성	긴급한 상황에서 쉼터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긴급 출산, 폭력으로 인한 긴급한 수술, 아동 정서 문제 등 일상 생활의 지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지원이 별도로 필요함
진행내용	총3건 6명 지원

이름(가명) 및 출신국	지원내용
엠튜나(임산부) 태국	임신상태로 쉼터 아델의 집에 입소함. 태아의 산소 부족 및 건강상태 악화로 긴급 제왕절개로 수술함.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임신 출산교육 및 퇴소전까지의 영아에 대한 건강 체크가 진행됨.
당티튀(김00) 베트남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주여성의 우울증과 자녀 정서장애 상태로 일반 심리치료 및 학습클리닉으로 회복이 어려웠음. 이에 어머니 당티튀와 아들 김00에 대한 상담과 약물치료 각 15회기 진행함
김연진(김00) 중국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우울증 및 외상 그리고 자녀 분리불안등의 정서장애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문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진행함. 추후 심리미술치료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함.

활동가 소감

활동가 신영숙 -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미술치료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은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고, 식사를 잘 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행동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하여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려고 해도 다가갈 틈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걱정애 자신 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엄마.. 그들 못지않게 걱정하고 있던 저희에게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눈에 띄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맞추고 웃으며 함께 장난을 치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새삼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원래 이보다 더 밝은 아이, 다정한 가족이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이제라도 우리와 함께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쉼터 이주여성 수기

아동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새롭게 마음을 열수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구요 아이들이 미술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않아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아이들이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니 정말 기쁩니다. -요00

추석 나눔 - 전국 7개 쉼터 명절 선물 나눔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내용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과 가족의 경우,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따뜻한 한가위를 나누고자, 각 7개의 쉼터에 쌀 20kg, 주방용품 및 욕실용품세트, 사과 1박스를 명절 선물로 나눔
----------------	---

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내용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과 가족의 경우, 반복되는 폭력과 갈등의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도 쉼터 내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은 다양한 문화탐방프로그램을 통해 쉼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였음
----------------	--

대구이주여성모자원쉼터	아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관람, 실내놀이터 체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월포해수욕장 여행, 영화관람2편
오산이주여성쉼터	용건릉방문 및 김장담구기
여성쉼터 ‘생명의 향기’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아델의 집	63빌딩 견학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유명산 캠프



활동가 소감

쉼터에 엄마,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다. 즐거운 문화체험!

모자쉼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저희 쉼터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중 문화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엄마가 외부활동을 함께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아서 아이와 함께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모자의 유대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인형극 관람을 시작으로 총 2회의 인형극 관람, 1회의 실내놀이터 체험, 1회의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인형극은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문화생활이라 갈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인형친구들과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람 후 항상 점심이나 혹은 저녁을 외식으로 해서 매우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놀이터를 갔을 때는 그동안 놀이터에서 뛰어 놀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3시간을 내리 뛰어 놀았습니다. 엄마들은 조금 지루해했지만 아이들은 자기들 세상에 온 마냥 세상을 모르고 노는 모습에 절로 흐뭇해했습니다. 생일파티를 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쉼터 내에서 꾸준히 행사로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 제안

필요성과 성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쉼터들은 단순히 생활비나 운영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나 정보망이 구축되지 못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이에 3회의 7개 쉼터 간담회 및 1회의 전국 쉼터(정부지원쉼터 포함 총 26개 쉼터)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간담회 총 3회 실시 네트워크 공고화 및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교류 진행

일시	내용
2011년 2월 16일	전국 7개 쉼터 소개 및 쉼터 특성 안내 지역사회 현황 공유, 지원받고 싶은 분야 의견제시
2011년 6월 8일	쉼터 현황공유, 쉼터별 이슈, 중간 사업보고
2011년 11월 8일	2012년 필요한 지원 영역, 네트워크 역할 재확인

토론회 2011년 3월 22일 진행

전국 26개의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쉼터와 정책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발전적인 논의를 시도함.

주최 | 이주여성쉼터 전국네트워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 우정사업본부, 한국여성재단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 시간 | 3월 22일 오후 2시-5시

진행일정 2011년 3월 22일(화)

사회자 : 장명선 박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여는 말	
14:10~14:30	주제발표 1 위기의 이주여성당사자에게 필요한 쉼터의 역할	레티비츠 다오
14:30~14:50	주제발표 2 이주여성 쉼터 관련 정책과 현황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14:50~15:10	주제발표 3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 체류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들	소리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5:10~15:30	주제발표 4 이주여성에게 안전한 쉼터의 기능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5:30~15:45	휴식	
15:45~15:55	지정토론 1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15:55~16:05	지정토론 2	김은경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주무관)
16:05~16:15	지정토론 3	추병선 (법무부 사회통합과 사무관)
16:15~16:25	지정토론 4	강성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
16:25~17:00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사회자





사진으로 보는 토론회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사업보고

다문화 Care! 4

그 세 번째 Care, 이주여성전문상담원교육 프로그램



주변에 있는 이주여성들 중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한국의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 여성을 전혀 도와줄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을 받고 나서 한국의 법과 가정폭력 상담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주여성통역사 원티다오(교육 참가자)님의 후기 중

참여단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통과 치유 지지는 나의 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이 친척도 없고 한국말을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웠던 것들 알고 있는 만큼 주변사람들만 아니라 전국 이주여성들한테 가정폭력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주고 싶다.”

이주여성 활동가 당비치님(가명)수기 중

사업개요

사업명	소통과 치유 지지는 나의 힘
사업대상	대구지역 이주여성과 그 가족(실인원 60명, 연인원 2,040명)
사업기간	2011년 2월~ 2011년 11월
총사업비	5,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역량 강화시도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상담심화 워크숍을 통해 이주여성간의 유대감 및 자질과 역량강화 시도

세부목표

여성부 인증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여성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
상담 심화과정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박2일 상담 워크숍을 통해 이주여성 상담원들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상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강화 시도

교육세부내용

참여자	이주여성 15명(다문화가족 60명)
교육일시	2011 7월 20일~8월 24일(100시간 진행, 수요일 토요일 오전 9시~6시30분)
장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교육일정	회차	강의명	강사
	1	개강식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상담소
	2	여성주의로 세상보기	최희건(경주대 외래교수)
	3	한국사회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	최희건(경주대 외래교수)
	4	여성주의관점에서 본 여성폭력문제	고명숙(대구이주여성쉼터시설장)
	5	현대사회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	금박은주(포항MBC구성작가)
	6	미디어로 보는 이주여성 인권과 국제사회	금박은주(포항MBC구성작가)
	7	이주여성에게 직접듣는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으로 산다는것	니감시리 (본센터 다문화기획단팀장팜티검장(본센터 법률지원팀장)
	8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정신과적 대응	김성미(마음과마음 정신과의원)
	9	인종과 혈통주의, 그리고 다문화	최대희(대구교대 교수)
	10	이주여성 상담의 상담유형별 특성과 사례연구(1)	김혜정 (본회 사무처장)
	11	한국에서의 이주여성의 현실1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박진옥(영남대 외래교수)
	12	가정폭력 관련VTR 시청과 토론	김상현(여성영상공동체 핀다대표)
	13	여성폭력수사과정과 지원체계	윤순옥(대구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계 반장)
	14	아시아각국의 문화 이해하기	정주영(동국대 외래교수)
	15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인경(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소장)
	16	알고올과 가정문제	이창원(달구벌알콜상담센터장)
	17	폭력과법의이해 - 가정폭력관련법과이주여성, 가족법	장익현(변호사)
	18	이주여성정책 살펴보기	김선희(대구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
	19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정당방위로 남편을 상해치사한 사건 판례분석	김정순(본센터 사무국장)
	20	한국에서의 이주여성의 현실2 - 성매매를 중심으로-	신박진영(대구여성인권센터장)
	21	이주여성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 및 국적법	하경환(변호사)
	22	국내법을 통해서 본 이주민의 인권	윤정대(변호사)
	23	여성심리	김민예숙(춘해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24	여성주의상담의 원리	김민예숙(춘해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25	여성주의 상담의 기법	김민예숙(춘해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26	이주와 노동 그리고 여성	임복남(민주노동 비정규노동국장)
	27	한국의 아내구타 실태와 대책	김정순(본회 상담소장)
	28	이주여성 상담의 상담유형별 특성과 사례연구(2)	고명숙(본센터 쉼터시설장)
	29	상담기법 -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습	신순옥(한국크리스토퍼 리더쉽강사)
	30	가족치료와 부부상담기법	박광숙(미술연구소소장)
	31	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지원과 법률지원체계 -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장혜진(전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32	이주여성 관련 복지지원체계	이신영(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3	상담기법 - 게슈탈트이론과 여성주의상담	김주(춘해보건대학 외래교수)
	34	이주여성과의 평등한 상담관계 / 수료식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사업 성과

사업명 (세부사업별)	추진성과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상담원교육기회를 제공해 여성부인정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을 얻게 하여 경제활동의 욕구가 강한 이주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함상담원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후 이주여성활동가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15명을 목표로 하여 15명의 교육생의 목표를 달성함
1박2일 심화과정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심화과정인 1박2일 상담 워크숍을 통해 이주여성 상담원들간의 연대감 형성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상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고 상담기술을 익혀 실제로 이주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됨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수료자 및 활동가와 본 센터 활동가 및 수료자가 연합하여 참가 인원 20명으로 이주여성상담가들과 연대하여 소통과 교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구 경북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과정,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상담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편견을 버리고 이주여성 당사자도 이주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적 인 환기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에 참가한 이주여성 15명, 선주민 여성 8명, 1박2일 워크숍에 참여한 이주여성 12명과 선주민 여성 15명을 포함해 전체 40여명의 여성들에게 이주여성상담원 교육 100시간과 심화과정 1박2일 이라는 긴시간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주여성들에게는 자존감, 선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 교육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나는 원래 감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내담자 말을 들으면서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런데 상담자로서 같이 울어버리면 상담을 할 수 없어서 참고, 내담자에게 공감을 주고 이해해주고 상담했다. 그런 모든 내용을 가정폭력 상담교육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국어 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내담자에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라서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이주여성 상담원 피련님 수기 중

사업 개요

사업명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 교육
사업대상	서울 수도권 지역 이주여성과 그 가족(실인원 80명, 연인원 2,720명)
사업기간	2011년 5월~ 2011년 10월
총사업비	5,000,000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정폭력 관련 상담에 대해 당사자 활동가들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및 전문성 제고현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활동가 15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실시



세 부 목 표

통역사, 상담사 등으로 활동중인 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 100시간의 가정폭력 전문 상담 과정 교육 이수와 1박2일의 후속 교육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함

교 육 세 부 내 용

-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 기간 : 2011. 6. 13 - 9. 19 (매주 월요일)
 - 교육 시간 : 102시간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 100시간)
 - 교육 수료자 : 21명 (이주여성 18명, 선주민 여성 3명)
 - 교육장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 가정폭력 상담원 후속교육
(대구지부와 공동 수행)

- 기간 : 2011. 9. 30 - 10. 1 (1박2일)
 - 교육 내용 : 이주여성 집단 상담
 - 장소 : 울산시 소재 펜션

세부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내용
가정폭력전문 상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대상 : 22명 1)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18명 2) 선주민 활동가 3명추진 지역 : 서울추진 방법 1) 참가자 모집 : 이주여성 당사자 자조모임 및 이주 관련 단체 · 기관 의뢰 2) 참가 신청자 : 37명 (이주여성25명, 선주민 여성 12명) 3) 선정인원 : 22명 (이주여성 18명, 선주민 4명) 4) 선정 기준 ①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이수 자격 여부 ② 이주여성 우선 선발 ③ 선주민 여성의 경우, 이주여성 유관 기관 업무자에 한함 ④ 자격 미비자 중 결혼이주여성이 소수인 출신국인 경우 교육 참여권 부여 ⑤ 자격 미비자인 경우 자체 수료증 발행 에 동의한 경우 5) 교육 수료자 : 21명 (이주여성 18명, 선주민 3명)
상담원 후속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대상 : 상담원 교육 수료자 서울, 대구 20명추진 지역 : 대구추진 방법 : 대구지부와 공동사업 서울, 대구에서 각기 이주여성 당사자 대상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후속 교육으로 서 실시 1) 이주여성 집단 상담 2) 대구, 서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일정 및 내용

회차	강의내용	강사
1	한국사회와 여성의 삶	김엘리(성공회대 강사)
2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김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3	지구화와 여성이주	문현아(서울대 강사)
4	여성인권과 폭력	장윤경(갈등경영연구소장)
5	성폭력 실태와 대책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장)
6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
7	한국의 이주여성 현실과 인권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8	성매매와 여성인권	정미례(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9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10	여성폭력 수사과정과 절차	이새롬(광역수사대성폭력특별수사대)
11	이주여성 체류와 관련 법	소라미(변호사)
12	아동폭력 실태와 상담	안소영(성북아동보호전문기 관장)
13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 법	위은진(변호사)
14	여성주의 상담 1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5	여성주의 상담 2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6	가족법, 이혼관련 법의 이해와 적용	조인섭(변호사)
17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 1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 2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19	여성인권 영상물 상영	
20	가족치료 1	김상임(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연구위원)
21	가족치료 2	김상임(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연구위원)
22	이주여성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
23	가해자 상담의 방향과 과제 1	장희숙(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4	가해자 상담의 방향과 과제 2	장희숙(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5	외도, 시집 갈등에서의 여성주의 상담	배인숙(한국여성의전화 쉼터소장)
26	현실요법 1	김미랑(연우심리상담소 부소장)
27	현실요법 2	김미랑(연우심리상담소 부소장)
28	여성정신건강의 이해	안성희(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29	해결중심상담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30	해결중심상담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31	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1	강성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32	가정폭력 상담 사례 연구 1	김은경(청주이주여성쉼터 소장)
33	가정폭력 상담 사례 연구 2	김은경(청주이주여성쉼터 소장)
34	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2 - 수료식	최진영(서울이주여성쉼터 사무국장)

사업 성과

사업명 (세부사업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전문 상담원 18명, 이주여성 관련 기관 업무 종사자 선주민 여성 3명 등 총 21명의 전문 상담원 배출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에 대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 교육으로 당사자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관련 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로서, 상담 전문성이 강화되었음
- 자국 공동체 및 이주여성 활동 공간에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자국 상담원에 의한 상담 가능성이 높아져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가능

추진성과

상담원 후속 교육

- 서울-대구 공동 후속교육(1박2일)으로 상담원간 네트워크 형성
- 이후 상담 연계, 사례 연구 공동 작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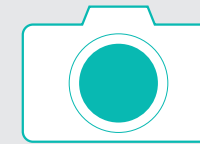
- 이주여성 당사자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여성 관련 기관 및 이주여성 당사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최초 교육 신청자 37명 → 이 중 선발을 통하여 22명 교육 참가 → 21명 교육 수료)
-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전문 상담원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이용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주여성들에게는 전문 자격을 갖추으로써, 취업 조건에 유리한 계기가 되었다.
- 대구지부와 공동 주최한 후속 교육은 1) 이주여성들의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일을 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당사자 활동가들이 함께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컸으며, 그 자체로 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성격이 강했다. 2) 대구지부와 공동 주최함으로써 서로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이후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당사자 활동가간 네트워크망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이주여성 관련 상담 분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통역을 통한 선주민 여성들의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상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이번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은 당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킨 전문 상담원 교육 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주여성들이 단순히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당사자 활동가들의 전문성 확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여성=피해자'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수기

피렌 / 캄보디아 상담원

나는 입국하기 전에 한국 정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한국에 왔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름 다웠고 좋았다. 그런데 살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캄보디아 상담통역 하는 일을 하게 되어 너무 기뻐다. 더구나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아서 체류 관련한 법, 의사소통,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배워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은 힘들었다. 시간이 길고 내용도 많아서 이해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다. 만약에 다음 교육이 있으면 하루 종일 계속 공부하도록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훈련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자신있게 내담자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이주여성전문상담원교육 프로그램



그 네 번째 Care, 다문화사회 조성사업



다문화 글짓기를 공모하기 전에는 외국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쳐다보았었다. 글쓰기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배우면서 외국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공직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기억을 되살려서 멋지게 일하고 싶다.

2011년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토론회 중 대전중앙초등학교 송예람의 말

2011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일시 2011년 8월~10월 ● 주관 한국여성재단 ● 주최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함께 나누는 좋은 세상”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은 2010년에 이어 2년째 한국사회의 차세대 리더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함
“우리는 다~**多**문화에 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경험한 다문화 이야기와, 엄마 아빠 나라를 경험한 이야기,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됨



다문화글짓기 공모과정

8.29~9.27	총 146작품 공모
8.27~9.7	1차심사 - 총 44작품 선정
9.9~9.13	2차심사 - 총 30작품 선정
9.16	3차 최종회의 - 최종 16명 선정
9.17	수상자 발표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7월~8월간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8월29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에서 총 146편의 응모작이 접수됨.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는 1차 심사가 진행되었고, 4명의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44작품을 선정함.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30작품이 선정되면서, 9월 16일에 4명의 심사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최종회의를 거쳐 대원국제중학교 조연지양을 포함 총 16개의 작품이 선정됨.



2011년 다문화사회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 김영옥 위원
- 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 양계민 위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창호 위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외종교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 조용민 위원
-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 팀장

수상자명단

수상내역		수상자	학교명	상장 및 장학금
〈대상〉 우정사업본부장상(대상)	전체	조연지	대원국제중학교	100만원
〈1등〉 다문화희망날개상	초등부	이현주	지방초등학교	50만원
	중등부	이수연	대동여자중학교	30만원
	고등부	김현지	마산합포고	20만원
〈2등〉 다문화아픔상	초등부	이혜민	광정초등학교	20만원
	중등부	김영현	안성여자중학교	20만원
	고등부	신가영	동국대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	20만원
〈입상〉 다문화친구상	초등부	송예람	대전중앙초등학교	20만원
		이정민	강일초등학교	20만원
		박세은	대구남부초등학교	20만원
	중등부	유현	부여여자중학교	20만원
		김민준	청주서경중학교	20만원
		염예림	호성중학교	20만원
	고등부	백찬은	부산사직여자고등학교	20만원
		김소희	영신고등학교	20만원
		서예림	보문고등학교	20만원

2011다문화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 주관 한국여성재단
- 주최 우정사업본부
- 장소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장
- 일시 2011년 10월 27일 오후 2시

홍보

- 전국 1,600개 학교: 공모문, 포스터 발송/ 전국 20여개 시·도 교육청 협조공문 발송
- 200여개 논술학원, 청소년 관련 사이트, 카페 등 온라인 홍보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홍보/재단 홈페이지 공고(배너)
- 언론매체 보도자료 2회 배포

2011다문화글짓기 언론 홍보결과

2011-10-27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권봉식기자
2011-10-27	디지털데일리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공모전 대상 시상식 개최	이상일기자
2011-10-27	아이뉴스	대원국제중 조연지 양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서 대상	정수남기자
2011-10-27	연합뉴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글짓기 공모(종합)	경수현기자
2011-10-27	연합뉴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글짓기 공모	경수현기자
2011-10-27	연합뉴스	'다문화 사회, 이젠 베트남·태국어도 배워야'	이정내기자
2011-10-27	뉴시스	지경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박성규기자
2011-10-27	etnews	[우정이야기]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안수민기자
2011-10-27	아이티투데이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대회 시상	정경미기자

대원국제중 조연지 양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서 대상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 논설문 제출...우편 포스트라워서 시상

2011년 10월 27일 오후 15:21

정수남기자 porea@news24.com

[정수남기자] 대원국제중학교에 1학년재 재학 중인 조연지 양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우편은 다문화·다민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편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우체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이라는 주제로 논설문 제출한 조 양에게 대상을 시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양은 자신의 글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습득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공존과 소통의 구심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열쇠"이라며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해 대학 교수들과 수상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도 펼쳤다.

김영록 우편부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체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 사업에 1억원을 지원했다.

<사진=우편이 주최한 '2011 다문화글짓기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조연지 양이 아버지 조 함께 함께 웃고 있다.>

7인 아이뉴스24, 연합뉴스24, 연합뉴스24

은 가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가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가 다문화사회의 주인공! 한마디 합시다. 그들의 어.록.

이번 시상식에는 단순히, 상장을 주고 받는 형식적인 시상식이 아닌, 16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다문화적 경험과 생각 고민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멋진 친구들을 어록을 공개 합니다!



“문화는 틀리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지망 고등학생 김현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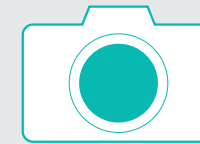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모두 함께 살고 있는데”
다문화사회 리더가 될 고등학생 신가영양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언어습득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공존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해답이에요”
작가지망 중학생 조연지양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공부도하고 조사도 하며, 다문화가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차세대리더 김민준



사진으로 보는

2011다문화글짓기 공모전



2011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성과

전국 15개 지역, 14,906명(연인원27,4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 수혜인원 : 실인원 14,906명, 연인원 27,415명(다문화가족 4인가족 기준)

구분(프로그램별)	계획목표 (명)		추진결과 (명)		달성도 (%)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폭력 및 갈등 사전예방(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	720	7,200	4,620*	12,509	641%	173%
폭력 및 갈등 사후지원(정부미지원 쉼터 지원 프로그램)	3200**	3200	9,888	9,888	309%	309%
안전망의 형성의 구조적 접근(이주여성전문상담원교육프로그램)	60	600	140	4,760***	233%	793%
안전망 형성의 문화적 접근(다문화글짓기공모전)	312	312	258	258	82.6%	82.6%
계	4,292	11,312	14,906	27,415	347%	242%

* 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 특성상 6개의 사업들이 1회씩 축제 진행으로 실인원, 연인원수가 계획보다 높아졌으며, 많은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축제참여 인원수가 크기에 실인원, 연인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

** 단기쉼터로 실인원 계산을 1달간 생활상담지원(4인가족기준)수로 책정함. 연인원과 실인원수 동일할 수 밖에 없음

***140명의 대상자(4인가족기준)의 34회 수업으로 140*34회 계산방식으로 연인원산출

신문 보도 13회 보도되었습니다.

2011-02-15	민중의 소리	이주여성 인권과 쉼터에 대한 토론회 22일 개최	양지웅기자
2011-03-08	연합뉴스	이주여성 인권과 쉼터 역할 토론회 22일 개최	구정모기자
2011-03-08	연합뉴스	종속적 결혼이주여성 법적 지위 보장해야	구정모기자
2011-03-08	연합뉴스	여성재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지원	구정모기자
2011-03-22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권봉석기자
2011-08-30	디지털데일리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공모전 대상 시상식 개최	이상일기자
2011-08-30	아이뉴스	대원국제중 조연지 양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서 대상	정수남기자
2011-10-27	연합뉴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글짓기 공모(종합)	경수현기자
2011-10-27	연합뉴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글짓기 공모	경수현기자
2011-10-27	연합뉴스	다문화 사회, 이젠 베트남·태국어도 배워야	이정내기자
2011-10-27	뉴시스	지경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박성규기자
2011-10-27	etnews	<우정이야기>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안수민기자
2011-10-27	아이티투데이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대회 시상	정경미기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 243회 진행

홍보방법	홍보내용
온라인 기관 홈페이지 http://www.womenfund.or.kr http://www.kjywca.or.kr http://cafe.daum.net/dwmigrant http://cafe.daum.net/pwmigrant http://www.eyincb.kr http://liveinkorea.mogef.go.kr/cheongju.center http://www.wmigrant.org	광주 YWCA http://www.kjywca.or.kr(10회) 대구결혼이주여성센터(연중수시, 10회) http://cafe.daum.net/dwmigrant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연중수시, 10회) http://cafe.daum.net/pwmigrant 충북이주여성센터(24회) http://www.eyincb.kr http://liveinkorea.mogef.go.kr/cheongju.cente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3회) http://wmigrant.org 한국여성재단(4회) http://www.womenfund.or.kr 전국 20여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블로그, 싸이월드 등 http://www.facebook.com http://cafe.daum.net/JAJLOVE http://www.mangonet.kr/ http://cafe.daum.net/immigration http://www.friendster.com http://www.qq.com	대구결혼이주여성센터(연중수시, 10회) http://www.facebook.com http://www.mangonet.kr http://cafe.daum.net/immigration 대구이주여성센터(연중수시, 10회) http://www.facebook.com http://www.friendster.com http://www.qq.com 충북이주여성센터(60회) http://cafe.daum.net/JAJLOVE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8회) http://www.mangonet.kr http://cafe.daum.net/immigration 희망웅상 (15회)
오프라인	기관 소식지 외 광주 YWCA- 회보 홍보 1회유관기관 네트워크 홍보, 우편발송 2회 대구결혼이주여성센터-공문발송 1회 대구이주여성센터 - 홍보엽서 발송 1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 주민자치센터 팩스 1회 발송, 관내 통장회의 안내문 발송 1회 충북이주여성센터 - 기관 소식지 1회, 리플릿 1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관련기관 20여곳 1회 안내 공문 발송 희망웅상 - 기관공지문 (총 13회) 자체 제작 홍보지 (1회) 전국 1600곳 전국 학교 포스터 및 공문 배포 전국 우체국 400부 포스터 부착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 10회 신문보도 - 한국여성재단 연합뉴스 등 총 13회 -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부산여성뉴스 3/25일자 홍보 외 전국 각지 6회 홍보

힘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왔습니다.

황희자 쉼터 생명의 향기 소장

애정으로 시작되지 않은 결혼,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진통의 주역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베트남부인 살해사건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 시대의 사람들이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속의 새로운 한국인인 결혼이주여

성들의 차별은 폭력이라는 무서운 힘에 의하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2011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이주여성피해쉼터지원사업은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쉼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사회가 인간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문화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소수의 약자들이 인권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지원하고, 지원 받는 관계를 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진지함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씨름한다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강기숙 쉼터 아델의집 소장

금년 한해 재단의 도움으로 저희 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여성 쉼터이므로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므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자국의 식품들을 잘 공급해 주지 못했었고, 그것이 아쉽던 차에 재단의 지원금은 특별히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덕분에 그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기호에 맞는 식품을 구입해 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지난 추석에 퇴소자들을 초대하여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넉넉히 준비된 음식을 집에 맡겼 가져 가는 나눔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이들에게 안겨준 행복감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

각합니다.

문화행사로는 지난 여름에 63빌딩 나들이를 다녀왔고 10월에는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한국에 와서 처음해보는 나들이라고도 하였고, 특히 에버랜드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많이들 즐거워 했습니다.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의 선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관과 그동안 몇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 가면서 이주민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열정들을 만났던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고민과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라고 고민을 나누던 마지막 모임에 많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한해 소중한 분들을 만났던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 그것에 힘을 받아,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 드립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보렵니다.

이정아 오산이주여성센터 활동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 안전망 사업에 ‘이주여성 다문화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2010년에 처음 오산이주여성센터가 개소하였고 2010년이 끝나갈 무렵 다문화수업을 운암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처음 시작한 다문화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기쁨마음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이주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 나

갔다. 우리의 자료는 학교를 갈 때 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하고 아쉽기도 했다. 방학 때는 친정에 다녀온 이주여성 중 한명이 국제전화를 하면서 다문화수업으로 위해서 어떤 물건이 좋을까를 물어보면서 열정으로 보았다. 수원의 매어를 초등학교의 축제에서 다문화수업을 하게 되었다. 각 나라별 의상을 입고 아이들에게 문화를 소개해 주었는데 외부에서 온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자신들의 학교에도 꼭 와달라고 하였다. 2주후에는 근처 대평초등학교에서 요청하여 다문화수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떨리고 힘들어하던 이주여성들이 갈수록 당당해지고 설명도 여유 있게 하게 되었다. 다문화수업을 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다문화수업을 들은 아이와 들은 적이 없는 아이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후와 지리적 특성, 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여러 나라를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은 변화한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소중함도 느끼고 또 역사공부를 하자고 하니 모두 와서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주여성들과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고 싶어졌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자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였다. ‘미술로 만나는 내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을 2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주여성들이 많이 좋아해서 미술치료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해주셨다.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주여성들이 마음을 열어 놀 곳이 없음을 느꼈다. 함께 하면 할수록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찝찝하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하게 된다. 순박하기만 하고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들과 모여 함께 웃고 있으면 행복하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도달한 그녀들을 보며 언제까지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년에는 올해 단 날개를 가지고 날아보려고 한다. 날개를 달게 해준 한국여성재단에 감사하고, 내년에 우리들이 하늘을 날아오를 때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하면 더 힘찰 것 같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김○○ 오산이주여성센터 자조모임 참여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전에 준비하고 끝나면 정리했다. 그렇게 1년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센터 주인인 것 같아 좋다. 올해는 센터 선생님이 도와주어서 다문화 수업자료를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내가 직접 해보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주여성센터안에서 나는 한해 한해가 변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이주여성 다문화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라는 사업명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날개를 달아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정말 다문화 수업, 역사와 인권교육, 나라별 모임등을 진행하면서 날개를 단 것 같았다. 나는 이번에 다문화활동 전담인력으로 활동했다. 이주여성들에게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매우 기뻐했다. 한국사회에서 항상 주변에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항상 센터에 있으니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는 사람들을 안내했다. 모든 수업에 함께 가고, 모든 교육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김향란 사단법인희망옹상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일 년 동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결산보고를 하는 시점에 도달하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자리 잡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취업이주여성 다섯 팀의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2~3명씩의 리더를 두어 리더교육에도 힘을 쓰고자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리더강화교육과 한 번 이상의 자조모임은 가정을 가진 우리 이주여성들에겐 어쩌면 부담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자조모임 회원의 우스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는 이번 주엔 일주일 내내 희망옹상에 와요. 한글교실 두 번, 엄마교실 두 번, 리더교육, 자조모임, 거기다 토요일엔 운전면허시험공부까지. 희망옹상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비단 이 친구뿐이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사소한 개인 일은 희생하면서 참으로 열성적으로 프로그램을 지탱해 주었기에 처음 의도했던 모습에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리더교육에 임했던 친구도 있었지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한국어가 좀 되니까, 친구도 교육받으니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교육에 나왔던 친구가 하반기 시기관 간담회에서 멋지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의 효과를 새삼 실감하는 동시에 웅상지역이주 자조모임의 희망을 읽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베트남 자조모임에는 임신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출산이 겹쳐 회원들이 줄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걱정 아닌 걱정해 휩싸이기도 했고 성공적 자조모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던 필리핀은 구심점역할을 하던 리더가 이사를 가면서 두어달은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원이 적었던 캄보디아는 설상가상 리더만 빼고 모두 취업을 하는 바람에 존재여부가 흔들릴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은 자조모임이 쉬는 8월에도 자체회의를 거쳐 지역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취업여성팀은 작업때문에 가장 모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노동법교육을 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또한 빈자리를 채우듯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했고 캄보디아는 활발한 리더가 머리를 쥐어짜서 베트남 자조모임과 연계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갓 들어와 혼자인 라오스에서 온 이주여성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며 손짓, 발짓을 동원하여 아직 소통이 어려운 라오스여성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두어달 실무가 개입하기도 했지만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다시 친구들이 모

이고 있습니다. 온지 몇 달 안 된 필리핀 이주여성은 따갈로그어가 통하는 언니들이 서로 챙겨주고 고민도 들어주니 마냥 좋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집에서 필리핀음식을 만들어먹는데 비공식적 자조모임의 시작은 필리핀친구들이었던 듯 합니다.

순탄대로만이 아닌 굽은 길도 있었지만, 우리자조모임 친구들이 해낸 멋진 활동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조모임물품을 판매하여 상반기 760,000 하반기720,000원을 캄보디아어린이 수술비와 약제비로 지원하였고 중국 자조모임이 처음으로 봉사를 한 요양원에 베트남친구들과 캄보디아리더가 합류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 지역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 듯 합니다.

중국은 지역어린이대상 중국어교실을 연다하고 필리핀은 영어교실을 열 계획을 세우는 중인 듯 합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지역어르신대상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취업여성팀은 지속적 노동관련교육을 받아 주변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담이나 통역 등의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 아래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프로그램이 가져온 이런 작은 나눔들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신뢰와 기쁨을 주고 후배다문화가정친구들에게도 크나큰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에 희망옹상가족들이 크게 외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데 놀랍기도 했습니다.

우네르 사단법인희망옹상이주민센터 취업여성자조모임리더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연락이 희망옹상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몽골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몽골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모임을 하냐고 했더니 우네르씨는 취업여성들을 모아서 한 번 자조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이기는 해도 일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취업여성 자조모임을 만들어보겠다고 마음먹고 주변 취업한 여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조모임에 대해서 이야

기 했더니 전부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평일에는 사실 만나기가 힘듭니다.

일요일도 한글공부 마치고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해서 일요일 한글수업마치고 모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조모임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지만 좋은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다.

다른 모임은 티셔츠그림그리기, 악세사리만들기, 수세미짜기 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일단 티셔츠에 그림그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지만 모두 열심히 했고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에 우리의 수익금도 넣었을 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노동법과 관련해서 좀 많이 배웠고 상담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어서 취업여성들에게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4대보험 등과 관련한 공부도 함께 가르쳐주며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취업한 여성들은 노동법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 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희망옹상 노동상담 선생님의 교육을 듣기도 하고 한 번은 노동법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을 보태줄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 판매한 금액을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또 보내줄 수 있었을 땐 우리의 작은 힘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데 놀랍기도 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만들어 나간 자조모임이었지만 우리 취업여성들도 남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 준 귀중한 모임이었습니다.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에 감사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파트너 단체를 소개합니다!

Care 01: 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

파트너 단체

●●광주YWCA <http://www.kjywca.or.kr>

광주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기독교여성단체로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확대와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YWCA를 통하여 힘없는 이웃들이 힘을 얻고 평화로운 세상이 건설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섬김, 나눔, 살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http://cafe.daum.net/dwmigrant>

국가와 인종, 성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일상에서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는 재미있는 이주여성 운동단체입니다.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http://cafe.daum.net/pwmigrant>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강화해 나가고 다문화 가족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산이주여성센터 <http://owcc.or.kr>

오산이주여성센터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 등을 함께 합니다. 일방적 문화 수용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이주여성 스스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http://eyeincb.kr>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는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활동, 조직활동, 경제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정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아 민주사회, 평등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are 02: 쉼터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 단체 전국 쉼터 네트워크 7개 쉼터

- 나주이주민의집
- 대구이주여성쉼터
- 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
- 생명의 향기
- 아델의집
- 오산이주노동자쉼터
- 행복이주여성쉼터(행복터)

Care 03: 이주여성전문상담원 양성프로그램

파트너 단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http://cafe.daum.net/dwmigrant>

국가와 인종, 성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일상에서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는 재미있는 이주여성 운동단체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한국 사회의 적응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Care 04: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한국여성재단 주관 사업

- | | |
|------|------------------------------|
| 심사위원 | 김영옥 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
| |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이창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외교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
| | 조용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팀장 |

이외 협조 기관 |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단

